

## 『妙法蓮華經釋文』으로 본 통일신라의 한자문화\*

權 仁 瀨\*\*

- I. 머리말
- II. [석문] 주석 자료의 수집과 정리
- III. 통일신라의 한자문화 분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묘법연화경석문』(=[석문]; 일본 중산찬, 976)에 나타나는 신라 고승 음의가 4인(원측, 순경, 경홍, 태현)의 한자 관련 주석(=한자주)들을 바탕으로 통일신라 한자문화의 수준을 분석해보는 것에 목표를 둔 것이다.

2장에서는 [석문]의 주석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신라 고승 음의가(=신라 음의가) 4인의 한자주 44개를 수집하였고, 이들을 내용적으로 분류하여 자형주 9, 자음주 12, 자의주 16, 기타주 14로 정리하였다.

---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1034883).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ihkwon@skku.edu

3장에서는 신라 음의가들의 생애와 저술을 간략히 소개한 후, 한자주의 성격에 따라 자형주(A), 자음주(B), 자의주(C), 기타주(D)로 분류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해보았다. 전체적으로 주석별 원전과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신라 고승 음의가 4인이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원전 자료들로써 자형·자음·자의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밖에 주석별로 특징적인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형주(A): 자형주들에서는 순경사가 자형 정보에 더하여 “訛也”, “非也” 등 그의 판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바, 이는 그의 학문적 자신감 내지 깊이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중산사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은 순경사의 학문적 권위가 신라를 넘어서 일본에까지 인정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2) 자음주(B): 자음주들 중에서 순경사의 “「捷」: 居隱反”과 중고음 “渠焉反”的 차이에 대하여 필자는 기존과는 다른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것은 문제의 상통자 「隱」과 「焉」이 향가에서 주제격조사 표기에서 ‘-은’과 ‘-운’을 담당하는 글자로 쓰이면서도 양자가 중화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약 순경사가 알고 있었던 향찰 표기 체계에서 「隱」 vs. 「焉」의 차이가 중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순경사가 이러한 향찰 표기 체계의 영향으로 자음주에서까지 위와 같은 특이한 반절을 보였으리라는 가설을 제시해본 것이다.

3) 자의주(C): 자의주들 중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측사와 태현사의 두 음주가 원전과의 완전 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태현사가 자은대사 규기사의 『성유식론술기』의 원문을 비교적 충실히 옮긴 것은 종파적 대립과는 다른, 그의 학구적 태도의 발현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순경사의 “猶豫 躊躇也”라는 주석에서 連綿詞 “猶豫”에 대하여 또다른 연면사 “踌躇”로 주석을 달고 있음은 중국 음의가들의 수준을 뛰어넘는 학문적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음도 특기할 만하다.

4) 기타주(D): 기타 주석들 중에서 순경사가 “鑰石”에 대한 주석에서는 중국 음의가들과는 달리 “청색”이라는 구체적인 색상까지 밝히고 있음은 순경사가 신라에서의 “유석=청동”이라는 경험적 지식을 알고 있다

는 점에서 그가 이론적/경험적 지식을 두루 갖춘 학자였음을 알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7세기 중반~8세기 초엽 통일신라의 한자문화가 이미 상당한 경지에 도달해 있었던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주제어 —————

『묘법연화경석문』, 자형주, 자음주, 자의주, 원측, 순경, 경홍, 태현

## I. 머리말

본고는 일본의 헤이안시대 중기에 법상종의 학승으로 활약하였던 中算(仲算으로도 算)이 976년에 편찬한 『妙法蓮華經釋文』 속에 인용되어 있는 신라 고승 음의가 4인 즉, 圓測師, 順憬師, 憶興師, 太賢師의 한자 관련 주석들을 중심으로 7세기 중반~8세기 초엽 통일신라 한자문화의 수준을 분석해봄에 목표를 둔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南豐鉉(2003)의 최초 개척적인 논문을 비롯하여 金正彬(2003, 2004), 梁曉虹·陳五雲(2014) 등 기존 논의들이 있으나, 신라 음의가들의 한자주들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본격적인 고찰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빈 교수의 논의는 한자음 중심인 반면에 梁曉虹·陳五雲의 논의는 한자주들과 중국 원전들과의 관계 규명에 초점을 두는 등 [석문]에 인용된 주석들이 자형, 자음, 자의, 기타 등 다양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아직 이들을 종합 논의한 업적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sup>1)</sup>

필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2장에서 한자주 수집 및 정리에 이어서 3장에서는 자형주, 자음주, 자의주, 기타주로 나누어 각 주석들의 한자문화사적 의의 탐색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논저 및 인터넷 사이트들을 적극 활용하여 논의에 임할 것이다.

1) 본고를 집필함에 있어서 남풍현 선생님의 도움에 힘입은 바가 컸음을 밝혀 사의를 표하고자 한다. 당신께서는 이 자료에 대한 선구적인 논문을 발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이 후학들에게 격려 겸 과제를 부과해주셨기 때문이다.

“이 두 주석서(※순경사의 『법화경음의』, 경홍사의 『법화경소』)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국어학적인 정보는 당시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알려주는 단편을 제하고는 미미한 것이라 하겠으나 … 이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니 이것은 우리 國語學史를 지금보다도 훨씬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여 줄 것이다.” <남풍현 2003: 44>

## II. [석문] 주석 자료의 수집과 정리

### 1. 주석 자료의 수집

#### 〈범례〉

- ① 다음은 醍醐寺藏 『妙法蓮華經釋文』(1979, 浚古書院 영인본)에 보이는 신라 고승 음의가들의 한자 관련 주석들을 모은 것이다.
- ② 자료 수집에 위의 영인본 외에 『大正新脩大藏經』 No. 2189의 번각본과 함께 “SAT DB” 사이트([21dzk.l.u-tokyo.ac.jp/SAT/satdb2015.php](http://21dzk.l.u-tokyo.ac.jp/SAT/satdb2015.php))에 공개된 입력본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
- ③ 원문의 縱書를 橫書로 입력하되 大字 標題項은 ‘[ ]’ 속에, 小字 雙行의 협주문은 ‘【 】’ 속에 넣어 구분하였다. 협주문에서의 생략 부호(、)로 표시된 글자들은 문맥에 맞게 고쳐쓰되, 해당 글자에 점선 밑줄( )을 그어 표시하였다. 또한 고유명사 중 인명은 단선 물결무늬 밑줄( )로, 서명은 복선 물결무늬 밑줄( )을 그어 원문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한 원문의 자형이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이체자일 경우, 「 」 속에 상하(/), 좌우(+)의 결합형으로 보이거나, 대응되는 正字에 ‘^’ 표시를 한 후, 괄호 속에 원문 자형을 보였음을 밝혀둔다.
- ④ 주석 구분 약호는 다음과 같다.  
구분1→ 順: 順憬注, 憶: 憶興注  
구분2→ A: 字形注, B: 字音注, C: 字義注, D: 기타.

No	구분1	구분2	被注項	[표제항] 【협주 분문】 <영인본 출전>
○序品				
01	順01	D	耆闍崛	[耆]…[闍]…[崛] 【強歎反. 慈恩 <sup>2)</sup> 云 具云 姒利 馱羅矩吒. 唐云 鷲峰. 佛成道後. 向五十年多居此 山. 舊云 耆闍崛訛略也. 新羅順憬師音義云 或言伊 沙崛訛也.】 <上:4v>
02	順02	B	耶	[伽]…[耶] 【彙捷 <sup>3)</sup> 云 也遮似嗟二反. … 順憬師 雖出兩音意取似嗟反. 下伽耶城 <sup>4)</sup> 准此知之. …】 <上:6r-v>
03	順03	B	捷	[大目]…[捷] 【渠焉反. 順憬云 居隱反. 捷公作軋 字】 <上:6v>
04	順04	D	旃	[摩訶迦旃】 【諸延反. 或作栴. 順憬云 旁安木. 未 詳所出.】 <上:6v>
05	順05	B	離	[離】 【力知反. 順憬云 又力智反.】 <上:6v- 7r>
06	順06	AB	藐	[阿耨]…[多羅三]…[藐】 【慈恩云 彌爵反. 本是邈 音. 玉篇 模角反 又彌紹反. 今借音耳. … 順憬云 或作藐 力當反 非音也.】 <上:8r>
07	順07	A	波	[麁]…[陁波】 【順憬云 或本作婆字訛也.】 [羅]… <上:10r>
08	憬01	B	樂	[訥]…[闍]…[婆]…[樂】 【慈恩云 五孝反. … 玄 應 <sup>5)</sup> 憬興 行琰 <sup>6)</sup> 同之. …】 <上:11v>

2) =窟基(632~682). 『妙法蓮華經玄贊』, 『法華音訓』(慧琳『一切經音義』第27卷收), 『成唯識論述記』, 『金剛般若經贊述』, 『金剛般若經論會釋』 등 저술.

3) 大隋京師 惠日道場 沙門. 『妙法蓮華經字釋』 저술.

4) “從地涌出品”에 서의 [伽邪] 항목을 가리킨다.

[伽邪【似嗟反】城】 [慈恩云 在麻揭陀國之內境. 西域記云 戒賢伽藍西南行四五十里. 度尼達禪河至伽邪城. 甚險固. 少居人. 唯婆羅門有千家之.】 <下:10r-v>

5) 唐代 沙門. 『一切經音義』 25권 저술(644년 경).

6) 五代後周代 沙門(895~956). 『內典隨函音疏』 500여 권 저술.

No	구분1	구분2	被注項	[표제항] 【협주 분문】 <영인본 출전>
09	順08	C	曼殊沙	[曼殊沙] 【尸加反. 慈恩云 曼殊沙 唐云 柔軟也. 光宅 <sup>7)</sup> 云 白圓花. 袁藏 <sup>8)</sup> 云 音花. 順憬云 檻花也.】 <上:12r>
10	順09	A	旃	[旃] 【諸延反. 或作梅字. 順憬云 經中從木非也.】 <上:16r>
11	順10	D	旃檀	[檀] 【徒干反. … 順憬云 皮青而滑. 木堅實也. …】 <上:16r>
12	順11	AC	喻	[喻] 【羊戌反. 慈恩云 開也. 曉也. 曇捷作諭. 諭喻同也. 順憬云 經本從口者喜也. 非經義也. 今案同矣.】 <上:17r>
13	順12	B	珊瑚	[珊瑚] 【蘇干反. 順憬云 又思割反.】 <上:18r>
14	順13	D	珊瑚	[珊瑚] 【戶吳反. … 順憬云 闕寶國出珊瑚也.】 <上:18r>
15	順14	D	摩尼	[摩尼] 【慈恩云 如意神珠也. 順憬云 正云末尼.】 <上:18r>
16	順15	B	禪	[禪] 【市蓮反. 麻吳 <sup>9)</sup> 云 內典 定坐也. 順憬云 借音時戰反.】 <上:20r>
17	順16 <sup>2</sup>	C	具	[具] 【其遇反. 麻呆云 足也. 順憬云 俱也.】 <上:20r 난외 별필=21r 분문>
18	順17	C	士	[語]…[士] 【鋤里反. 孫愬 <sup>10)</sup> 云 人土也. 順憬云 知終知始名之爲土也.】 <上:24r>
19	順18	B	切	[一切] 【七計反. 玉篇云 一切猶皆同也. … 順憬云 又竊音.】 <上:25r>

7) 梁朝 光宅寺 沙門 法雲. 『法華經義記』 저술.

8) =嘉祥大師. 隋代 沙門(549~623). 『法華義疏』 등 저술.

9) 『東宮切韻』(菅原是善撰, 20권, 880 이전) 속 唐代 『切韻』 저자의 1인.

10) 唐代 音義家. 『東宮切韻』 속 唐代 『切韻』 저자의 1인으로 『唐韻』 5권 편찬(730년대).

No	구분1	구분2	被注項	[표제항] 【협주 분문】 <영인본 출전>
20	順19	B	響	[響意] 【上許兩反. 說文云 聲也. 上宮聖德太子作嚮字. 今案非也. … 順憲云 鄉音.)】 <上:25v>
21	順20	D	瑠璃	[瑠]…[璃] 【呂支反. 慈恩云 具云 玳瑠璃. 即青黃赤白色也. … 順憲云 有青色如玉. 亦狀如雲母. 色如紫玉. 光耀如蟬羽矣.】 <上:26v>
22	圓測	C	眼	[眼] 【五限反. … 圓測師云 照矚名眼也.】 <上:27r>
23	順21	AC	廢	[廢] 【方肺反. 麻果云 止也. 舍也. 順憲云 或作廢. 困病也. 非此義也.】 <上:27v>
○方便品				
24	順22	B	度	[度量] 【順憲云 上鐸音. …】 <上:28v>
25	順23	C	猶豫	[猶豫] 【弋庶反. 釋氏 <sup>11)</sup> 云 逸也. 玉篇云 猶豫不定也. 順憲 猶豫躊躇也. …】 <上:29v>
26	順24	D	鎰	[鎰] 【托侯反. 順憲云 石亂金曰鎰也.】 <上:33v>
27	順25	AC	石	[鎰]…[石] 【埤贊云 鎰石似金陶之則分也. 犀捷順憲 行鎰 作鉢. 舟憲 <sup>12)</sup> 云 鎰鉢 金類也. 順憲云 青色也.】 <上:33v>
28	順26	C	彩	[彩] 【倉宰反. 郭知玄 <sup>13)</sup> 云 絹帛入色也. 順憲云 五色之總名也. …】 <上:34r>
29	順27	D	甲	[指]…[爪]…[甲] 【古押反. … 順憲云 內外包似甲胄. 故因爲名也.】 <上:34v>
30	順28	D	笛	[笛] 【徒歷反. 慈恩云 七孔籥也. … 律書樂圖云 橫笛本出于羌矣. 順憲云 羌笛三孔也.】 <上:35r>

11) 『東宮切韻』 속 唐代 『切韻』 저자의 1인.

12) 南朝 梁·隋·唐代 學者(541~645). 『博雅音』, 『文選音義』 등 저술.

13) 唐代 音義家. 『東宮切韻』 속 唐代 『切韻』 저자의 1인.

No	구분1	구분2	被注項	[표제항] 【협주 분문】 <영인본 출전>
31	順29	D	琴	[琴] 【巨金反. 慈恩云 說文 琴禁也. 君子守正以自禁. 神農所造也. … 廣雅云 琴長三尺三寸六分也. 順憬云 大者二十弦也.】 <上:35r>
32	順30	A	笙	[笙] 【苦紅反. 順憬云 又作「玆/空」(玆)或作綈也.】 [綈]… <上:35r>
33	順31	D	銅拔	[銅拔] 【蒲撥反. … 今案 銅字古書无之. 新切韵有之. 孫少 <sup>14)</sup> 云 銅樂器. 形如瓶口. 對而擊之. … 順憬云 銅拔猶鈴盤也.】 <上:35v-36r>
34	順32	C	網	[網] 【亡兩反. 順憬云 取魚具也.】 <上:37v> <妙法蓮華經釋文卷上>

○譬喻品

35	憬02	BC	械	[衣械] 【慈恩云 孤得反. 相傳從衣戒聲. 襪也. 今時女人衣前械是也. … 說文 宗廟戒樂. 從示戒聲. 玉篇 古來反. 戒也. 玄應 憬興 同之. …】 <中:3v>
36	憬03	C	頓	[頓] 【都困反. … 憬興云 頓者一時也. 行瑣同之.】 <中:6r>
37	憬04	AC	馞	[蓬]…[馞] 【「+/-補」(補)沒反. 墩蒼云 大香也. … 廣雅 盛也. 蓬勃繁盛之貌. 或作焞字. 无所從也. 憬興同之. 行瑣作勃矣.】 <中:15v>
38	憬05	BC	尙	[尙於] 【上慈恩云 時亮反. 庶几也. 直也. 憬興同之.】 <中:17v>

●<sup>15)</sup>信解品

●藥草喻品

14) 『東宮切韻』 속 唐代『切韻』 저자의 1인.

15) 주석이 없는 품명을 표시한다. 이하 같음.

No 구분1 구분2 被注項

[표제항] 【협주 분문】 <영인본 출전>

●授記品

●化城喻品

<妙法蓮華經釋文卷中> 一交了

●五百弟子受記品

●授學無學人記品

○法師品

39 懿06 A 逗

[句逗] 【徒斗反. 慈恩云 逗留也. 逗止也. 逗住也. 或作竇. 釋也. 句能尋釋諸義故. 或作証. 竹侯反. 順言也. 非經旨矣. 又作讐. 不知所從. 懿興同之. ...】 <下:3r>

○見寶塔品

40 太賢 C 牟尼

[牟尼] 【上莫浮反. 牟尼 唐云 寂也. 淨意菩薩十二因緣論云. 牟尼名无分別也. 太賢師云 此云 寂默. 成就无上寂默法者也.】 <下:3v>

●提婆達多品

●持品 【或本云勸持品. 法相三論天台諸疏單云持品. 傍有勸持義. 本論云勸持品. 道策上宮王只云持品. 全无勸字矣.】

●安樂行品

●從地涌出品

●如來量品

●分別功德品

○隨喜功德品

41 懿07 D 閻

[閻浮提金] 【慈恩云 此洲北岸有瞻部樹. 閻下有紫金. 故以爲名. 懿興同之. ...】 <下:13r>

●法師功德品

●常不輕菩薩品

No	구분1	구분2	被注項	[표제항] 【협주 분문】 <영인본 출전>
	○如來神力品			
42	憬08	D	囑累品	[○囑累品] 【正法華. 添品法華. 法華論. 法華儀軌. 幷慧淨 <sup>16)</sup> 瞞範 <sup>17)</sup> 慈恩 玄範 <sup>18)</sup> 道策 <sup>19)</sup> 憶興 利貞 <sup>20)</sup> 慧沼 <sup>21)</sup> . 皆以此品安普賢品後. 吉藏 天台 <sup>22)</sup> 安神力品後焉.】 <下:16v>
	○藥王菩薩本事品			
43	憬09	C	婆利師迦	[婆利師迦] 【憬興云 此云 白色華也. 玄應大菩薩藏經音義云 此云 夏生護花也. 華嚴經慧苑 <sup>23)</sup> 音義云 此云 雨時花. 西域呼夏爲雨時. 其花時生故名也.】 <下:18r>
	●妙音菩薩品			
	○觀世音菩薩普門品			
44	憬10	C	執金剛神	[執金剛神] 【慈恩云 手執金剛. 觀音異像也. 吉藏云 鬼神住四天處. 是摶至佛之化也. 瞞興云 瑜伽論護天帝城之神是也.】 <下:20r>
	●陀羅尼品			
	●妙莊嚴王本事品			
	●普賢菩薩功發品			
				<妙法蓮華經釋文卷下> (終)

16) 隋·唐代 沙門. 『法華經贊述』 저술.

17) 唐代 沙門.

18) 唐代 沙門. 『成唯識論疏』 20권 등 저술.

19) 未詳.

20) 未詳.

21) 唐代 沙門(648~714). 『法華玄贊義決』 등 저술.

22) =천태대사 智顥(538~597). 隋代 沙門. 천태종의 開祖. 『法華玄義』, 『法華文句』 등 저술.

23) =慧苑(673~?). 唐代 沙門. 『新譯華嚴經音義』 등 저술.

## 2. 주석 자료의 정리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석문]에 보이는 신라 음의가들(圓測, 順憬, 憶興, 太賢<sup>24)</sup>)의 한자주는 총 44개로 집계된다.<sup>25)</sup> 이는 경홍사의 『無量壽經連義述文贊』에는 미치지 못하지만<sup>26)</sup> 數的으로 그 다음에 갈 만큼 주석의 숫자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우선 이들을 『법화경』의 품명, [석문]의 권차 및 주석서 저자별로 그 분포를 정리하여 보이면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석문] ‘한자주’의 품별·권별·저자별 분포도

『법화경』의 품명    권차		圓測	順憬	憶興	太賢	계
서품	상권	1	21	1	-	23
방편품		-	11	-	-	11

- 24)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신라의 유식학의 흐름을 이어받아 발전시킨 고승들이라는 점이다(활동 시기순). 자세한 것은 본고 제3장 1절의 설명을 참조.
- 25) 남풍현(2003)에서는 <석문>에 등장하는 신라 고승들로 順憬과 憶興만을 들고 있고, 두 스님의 주석이 32+ 10=42개이며, 두 분 중에서 찬자인 中算이 “특별히 順憬에 대하여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 그의 이름에 ‘師’자를 붙여 ‘順憬師’라고 부른 예가 2번이나 된다. 이와 같이 어떤 저술을 인용하면서 ‘師’자를 붙인 것은 한 예가 더 확인될 뿐이다.”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는 다를 가능성성이 있는 듯하다. 우선 한자 관련 주석 작성자는 순경과 경홍 외에 원측과 태현이 더 있음이 드러났고, 따라서 그 용례도 42개에서 44개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中算이 이름 뒤에 ‘師’를 붙인 스님은 순경과 다른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이 아니라, 원측과 태현에 대해서도 ‘師’자를 붙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光法, 法証, 睿法, 法藏, 玄應, 良賁, 閻法, 如理, 超悟’ 스님 등에도 이를 뒤에 ‘師’자를 붙여 예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석문> 영인본에 吉田金彦·宮澤俊雅이 공동으로 작성하여 덧붙인 「法華釋文 出典索引」 참조). ‘師’자를 두 번 이상 붙인 경우도 ‘光法, 玄應, 如理’ 스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남풍현(2003: 39)에서의 순경사 관련 진술은 수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6)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의 주석 양은 ①자형주: 13개, ②자의주: 230여 개, ③자음주: 60자 63개(최종 56자 59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승재(2008) 및 권인한(2021) 참조.

비유품	중권	-	-	4	-	4
신해품		-	-	-	-	-
약조유품		-	-	-	-	-
수기품		-	-	-	-	-
화성유품		-	-	-	-	-
오백제자수기품	하권	-	-	-	-	-
수학무학인기품		-	-	-	-	-
법사품		-	-	1	-	1
견보탑품		-	-	-	1	1
제과달다품		-	-	-	-	-
지품		-	-	-	-	-
안락행품		-	-	-	-	-
종지용출품		-	-	-	-	-
여래수량품		-	-	-	-	-
분별공덕품		-	-	-	-	-
수희공덕품		-	-	1	-	1
법사공덕품		-	-	-	-	-
상불경보살품		-	-	-	-	-
여래신력품		-	-	-	-	-
촉루품		-	-	1	-	1
약왕보살본사품		-	-	1	-	1
묘음보살품		-	-	-	-	-
관세음보살보문품		-	-	1	-	1
다라니품		-	-	-	-	-
묘장엄왕본사품		-	-	-	-	-
보현보살공발품		-	-	-	-	-
28품		1	32	10	1	44

<표1>에서 보듯이, 신라 고승 음의가들의 한자주는 『법화경』의 품명으로는 序品과 方便品, [석문]의 권차로는 상권에 집중되어 있는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 $34/44=77.3\%$ ). 스님별로도 원측사와 순경사의 주석들이 이 곳에만 나타나고 있다. 태현사의 주석도 하권에만 나타남에 비해 경홍사의 한자주는 序品 1(상권), 譬喻品 4(중권), 法師品 1·隨喜功德品 1·囑累品 1·藥王菩薩本事品 1·觀世音菩薩普門品 1(하권)으로 품명이나

권차에서의 편차를 보이지 않음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신라 고승 음의가들의 한자주의 분포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원측사와 태현사의 주석은 각각 1개씩만 있을 뿐인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순경사와 경홍사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앞선 자료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경홍사의 한자주는 주로 중국 고승들의 주석 내용과 일치하는 “憚興同之”라는 서술이 주를 이루는 반면,<sup>27)</sup> 순경사의 한자주는 중국 고승들의 주석이나 여타 음의서의 내용과는 약간 다른 독자적인 내용이 다수인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그만큼 中算이 인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홍사의 『法華經疏』가 품명 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중국 고승들의 주석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中算師가 인용하기에 큰 부담이 없는 한자주들이 주를 이루었을 가능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와는 달리 中算師가 상당한 예우를 하면서 [석문]의 상권에만 32개의 한자주를 인용한, 순경사의 『法華經音義』에서의 한자주가 중·하권에 전혀 인용되지 않은 까닭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순경사의 음의가 서품과 방편품에 집중하여 한자주를 달았거나, 中算師가 참고한 순경사의 음의가 서품과 방편품만의 것으로 제한이 있었거나, 순경사의 음의가 『법화경』의 품명별 편차 없이 골고루 분포를 이루었어도 위의 두 품명 이외의 내용은 中算師의 관심과 일치하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었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어느 한 가지의 가능성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순경사의 한자주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인용을 보이고 있음은 그만큼 순경사의 한자주들이 中算師를 매료시킬 만큼 독창적이거나 깊이있는 내용의 것들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7) 이는 경홍사의 또다른 저작인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의 자음주에서 중고음파의 현저한 일치도(45/59=76.3%)를 보이는 경향과도 동궤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권인한(2021)의 논의를 참조.

다음으로 [석문] 속 신라 고승 음의가들의 한자주를 그 성격(←구분2)에 따라 분류하여 보이면 다음의 <표2>와 같다.

<표2> 고승 음의가들 한자주의 성격에 따른 분류

	圓測	順憬	憬興	太賢	계
자형주(A)		7	2		9
자음주(B)		9	3		12
자의주(C)	1	8	6	1	16
기타주(D)		12	2		14
계	1	36	13	1	51

<표2>에서 보면, [석문]에 나타난 신라 고승 음의가들의 한자주는 성격상 “자의주(16)>기타(14)>자음주(12)>자형주(9)”의 순서임이 드러난다. 위에서 주석 총계가 51개로 늘어난 것은 주석 자료 “구분2”에서 AB, AC, BC 등 복합적 성격의 주석으로 분류한 결과임을 밝혀둔다.

### III. 통일신라 한자문화의 분석

이 장에서는 앞서 수집 정리된 원측사 등 신라 고승 음의가들의 한자주를 바탕으로 통일신라의 한자문화에 대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주석 작성자들의 생애와 저술

유형별 한자주들에 대한 분석에 앞서 주석 작성자인 圓測·順憬·憬興·太賢師의 생애와 저술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8)</sup>

28) 아래의 서술 내용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을 바탕으로 하면서 부분적으로 국어학계의 견해를 보충한 것임을 밝혀둔다.

## 1) 원측(613~696): 휘 文雅, 자 圓測.

- 3세 출가. 15세 당에 가서 法常과 僧辨으로부터 유식학을 배움. 특히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 중국어 및 범어에 능통하였음.
- 당 태종의 度牒을 하사받고 장안의 元法寺에서 소승경론을 연구하는 한편, 대승경론도 꼭넓게 연구함.
- 玄奘 귀국 후(643년 경), 원측은 현장의 제자 窺基와 유식학에 있어서 대립적 견해를 보이면서 규기 등에게 부당한 시기를 당함. 이후 西明寺로 거쳐를 옮겨 방대한 저술을 통하여 중국 불교학계에 명성을 떨침.
- 676년, 薄塵·靈辨·嘉尚 등과 함께 『大乘密嚴經』 등 18부 34권을 번역. 『大乘顯識經』 번역시는 고증자로서 번역 책임을 맡음.
- 693년, 범본 『寶雨經』을 번역하였고, 695년 실차난타가 于闐國으로부터 와서 『화엄경』을 번역할 때도 번역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고 佛授記寺에서 입적함.
- 저술: 『解深密經疏』 10권, 『成唯識論疏』 10권, 『周別章』 3권, 『唯識二十論疏』 2권, 『觀所緣緣論疏』 2권, 『因明正理門論本疏』 2권 등 유식계통 문현에 대하여 많은 주석서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반야 계통의 문현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般若心經贊』 1권과 『仁王經疏』 3권 등을 남겼음.
- 이와 같은 원측의 유식 사상은 서명사를 중심으로 하나의 계파를 이루어 계승되었고, 그의 제자 道證은 692년(효소왕 1년)에 신라에 귀국하여 원측의 유식학을 신라에 전했고, 그의 사상은 태현사에 계승되어 해동 법상종 성립의 토대를 제공하였음.

## 2) 순경(? ~ ?):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초에 걸쳐 활동.<sup>29)</sup>

- 유식학의 대가. 중국에 유학 여부는 분명히 않으나<sup>30)</sup> 신라에서 현장의 “眞唯識量”을 기초로 “決定相違不定量”의 이론을 정립함.
- 乾封年間(666~667)에 당나라 입궁사신 편에 자신이 세운 “결정상위부정량”을 써서 현장에게 보냈으나, 이미 현장이 입적한 후였으므로 현장에게 보일 수

29) 남풍현(2003), 33쪽 참조.

30) 남풍현(2003), 33쪽에는 김상현 선생의 소론을 인용하여 “唐에 유학하여 玄奘의 문하에서 수학한 高僧이다.”라고 하고 있다.

없었음. 다만, 현장의 수제자 규기가 그것을 보고 매우 감탄하였다고 함.

- 저술: 그의 저술 중에는 중국에 전해진 것이 많음. 『法華經料簡』 1권, 『大毘婆沙心論抄』 10권, 『成唯識論料簡』 1권, 『因明入正理論抄』 1권 등이 있으나 현존하지 않음.<sup>31)</sup>

### 3) 경홍(? ~ ?32)): 백제 응천주 출신으로 성은 水氏. 7세기 후반기에 활동하였음.

- 18세에 출가하여 경·율·론 三藏에 통달하여 두루 이름을 떨쳤음. 통일 후 문무왕의 유언에 의해 신문왕 즉위 후 그를 국로로 삼고 三郎寺에 머물게 하였음.
- 원효, 태현과 함께 신라의 삼대 저술가로 평가될 정도로 많은 저술을 남겼음. 현전하는 것은 『無量壽經連義述文贊』 3권, 『三彌勒經疏』 1권, 『金光明經最勝王經略贊』 5권임. 전하지 않는 저작으로는 『法華經疏』 16권, 『涅槃經疏』 14권, 『無量壽經疏』 3권, 『觀無量壽經疏』 2권, 『阿彌陀經略記』 1권, 『大集經疏』 5권, 『藥師經疏』 1권, 『灌頂經疏』 2권, 『彌勒經疏』 3권, 『彌勒經逐義述文』 4권, 『無垢稱經疏』 6권, 『金光明經略意』 1권, 『最勝王經疏』 10권, 『解深密經疏』 5권, 『十二門陀羅尼經疏』 1권, 『四分律羯磨記』 1권, 『俱舍論鈔』 3권, 『瑜伽論疏』 10권, 『成唯識記』 2권, 『唯識樞要記』 2권, 『顯揚論疏』 8권, 『大乘起信論問答』 1권 등임.

### 4) 태현(? ~ ?33)): 법명은 大賢 또는 青丘沙門이라고도 불리였음. 신라 유식종의 宗祖.

31) 남풍현(2003), 33~34쪽에는 역시 김상현 선생의 소론을 바탕으로 이 밖에 『法華經音義』(권차 미상), 『法境論』 1권, 『大集經疏』 5권이 더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32) 경홍사의 물년에 대하여 이승재(2008), 125쪽에 경홍사가 저술한 『三彌勒經疏』에 측천무후자 「閔」자가 쓰임을 근거로 694년 이후로 보고 있다.

33) 『삼국유사』 4 의해 5 「賢瑜珈 海華嚴」조에 경덕왕 때의 활약상 참조.  
“瑜珈祖大德大賢 住南山葦長寺 … 景德王天寶十二年癸巳(753) 夏大旱 詔入內殿 講金光經 以祈甘霖 一日齋次 展鉢良久 而淨水獻遲 監吏詰之 供者曰 宮井枯涸 汲遠故遲爾 賢聞之曰 何不早云及晝講時 捧爐默然 斯須井水湧出 高七丈許 與刹幢齊 閣宮驚駭 因名其井曰金光井 賢嘗自號青丘沙門”

- 『梵網經古迹抄』에는 그가 화엄학을 익힌 뒤에 유식학에 입문하였다고 함. 『備忘抄』에는 현장-원측-도증-태현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밝히고 있음.
- 『삼국유사』에는 그가 유가종의 개산조로서 경주 남산의 용장사에 거주하였는데, 지혜와 언변이 정민하고 판단이 분명하였으며, 법상종의 이치를 통달하여 후학들과 중국의 학자들이 그의 저서를 기준으로 했다고 전함.
- 저술: 저서로는 총 52종이 있음.

경에 관한 것으로는 『華嚴經古迹記』 10권, 『般若理趣分經注』 2권, 『金剛般若經古迹記』 1권, 『新譯金剛般若經古迹記』 1권, 『仁王般若經古迹記』 1권, 『般若心經古迹記』 1권, 『般若心經注』 2권, 『法華經古迹記』 4권, 『無量壽經古迹記』 1권, 『觀無量壽經古迹記』 1권, 『阿彌陀經古迹記』 1권, 『稱讚淨土經古迹記』 1권, 『淨土總料簡』 1권, 『涅槃經古迹記』 8권, 『藥師本願經古迹記』 2권, 『彌勒上生經古迹記』 1권, 『彌勒下生經古迹記』 1권, 『彌勒成佛經古迹記』 1권, 『金光明經述記』 4권, 『金光明經料簡』 1권 등 20종이 있음.// 율에 관한 것으로는 『梵網經古迹記』 3권, 『梵網經菩薩戒本宗要』 1권, 『瑜伽戒本宗要』 1권 등 3종이 있음.// 논에 관한 것으로는 『佛地論古迹記』 1권, 『廣百論古迹記』 1권, 『掌珍論古迹記』 1권, 『瑜伽論古迹記』 4권, 『瑜伽論撰要』 3권, 『成唯識論古迹記』 10권, 『成唯識論決擇』 1권, 『廣釋本母頌』 3권, 『唯識二十頌古迹記』 1권, 『攝大乘論世親釋論古迹記』 1권, 『攝大乘論無性釋論古迹記』 1권, 『中邊論古迹記』 1권, 『辨中邊論古迹記』 1권, 『顯揚論古迹記』 2권, 『雜集論古迹記』 4권, 『菩薩藏阿毘達磨古迹合集』 17권, 『成業論古迹記』 1권, 『五蘊論古迹記』 1권, 『百法論古迹記』 1권, 『觀所緣緣論古迹記』 1권, 『因明入正理論記』 1권, 『因明入正理論古迹記』 1권, 『因明入正理論學記』 1권, 『因明正理文論古迹記』 1권, 『起信論內義略探記』 1권, 『法苑義林大乘心路章』 2권, 『法苑義林釋名章』 1권 등 29종임. 현재 『성유식론고적기』, 『기신론내의약탐기』, 『범망경고적기』, 『범망경보살계본종요』, 『약사본원경고적기』 등 5종만이 현존하고 있음.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圓測·順憬·憬興·太賢師는 대체로 7세기 중반에서 8세기 초반에 걸쳐 저술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명성 뿐만 아니라 저술량에 있어서도 중산사가 그의 [석문]에 인용하기에 충분한 저술 활동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앞서 본 대로 “현장-원측-도증-태현”으로 이어지는 법맥으로 보아 대외적인 명성도 면에서는 오히려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원측·태현사의 피인용 주석이 어찌하여 각각 1개씩에 그치고 말았을까 하는 점이다. 필자는 法華經에 관한 주석서들에 대한 중산사의 인용 횟수를 통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만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吉田金彥(1979: 232)에 의하면, [석문]에서 중산사의 인용 횟수는 慈恩(『法華經音訓』) 808회, 曼捷(『法華經字釋記』) 123회, 玄奘 100회, 不空 99회, 吉藏(『法華經義疏』) 99회, 玄應(『一切經音義』) 48회, 順憬(『法華經音義』) 32회, 湛然(『法華文句』) 28회, 栖後(『法華玄贊要集』) 27회, 惠雲 16회의 순이므로 중산사는 [석문] 찬술 시에 주로 자은대사의 『法華經音訓』에 크게 의존한 것으로 드러난다. 자은대사 규기는 앞서 본 대로 원측사와 학문적으로 대립하던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원측사의 법맥을 태현사가 잇고 있다는 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즉, 자세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중산사의 [석문]이 자은대사의 저술에 크게 의지함으로써 자은대사와 대립적이었던 원측사와 그의 법맥을 이은 태현사의 저술에서 인용하기를 꺼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현재 필자의 생각이다.

## 2. 한자주들의 내용 분석

### 1) 자형주(A): 순경사 7, 경홍사 2

(A)-①順06 菩 [阿耨]…[多羅三]…[菩]【… 順憬云 或作菩 力當反 非音也.】

<上:8r> ※阿耨多羅三菩菩提 <K-1064(新譯大方廣佛華嚴經音義),

上.20.23> ⇒『高麗大藏經異體字典』, p.895

②順07 波 [飄]…[陁波]【順憬云 或本作婆字訛也.】[羅]… <上:10r>

※飄陀婆羅菩薩(秦言善守) <『大智度論初品中佛土願釋論第十三(卷第七)』,

[0110c21] ⇒[http://tripitaka.cbeta.org/T25n1509\\_007](http://tripitaka.cbeta.org/T25n1509_007)

③順09 旂 [旂]【… 順憬云 經中從木非也.】[檀]… <上:16r> ※梅檀樹

<K-0080(大方廣佛華嚴經), 4.17.11> 등 ⇒『고려대장경이체자전』, p.437

④順11 喻 [喻]【… 曼捷作諭. 諭喻同也. 順憬云 經本從口者 喜也.

非經義也. 今案同矣.】 <上:17r> ※“喻喻 喜也” <『廣雅·釋訓』>

- ⑤順21 瘓 [廢] 【方肺反. 瘓果云 止也. 舍也. 順憲云 或作廢. 困病也. 非此義也.】 <上:27v> ※雖沉厄運無廢利人 苦廢二門不俱 <K-1501(金剛三昧經論), 下.40.17> 등 ⇒『고려대장경이체자전』, p.654
- ⑥順25 石 [鎰]…[石] 【… 疊捷順憲行瑣作鉢. …】 <上:33v> ※鎰鉢 <『不空羈索神變真言經』 권8, 12> 등 ⇒<https://kabc.dongguk.edu>
- ⑦順30 積 [笠] 【苦紅反. 順憲云 又作「玆/空」或作綈也.】 [箋]…<sup>34)</sup> <上:35r> ※「玆/空」/綈箋: 待考 出典!
- ⑧憲04 醇 [蓬]…[醇] 【… 廣雅 盛也. 蓬勃繁盛之貌. 或作焞字. 无所從也. 憲興同之. 行瑣作勃矣.】 <中:15v> ※燄焞 <K-0952(阿毗達磨大毘婆沙論), 133.35.10> ⇒『고려대장경이체자전』, p.570
- ⑨憲06 逗 [句逗] 【…或作証. 竹侯反. 順言也. 非經旨矣. 又作讀. 不知所從. 憲興同之. …】 <下:3r> ※証非經旨又作讀未見所出 <K-1063(一切經音義\_玄應), 6.30.19> ⇒『고려대장경이체자전』, p.1028

위의 자형주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순경사와 경홍사가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불경 자료들을 통하여 다양한 자형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순경사의 경우, 원효의 『금강삼매경론』뿐만 아니라 『신역대방광불화엄경음의』, 『대지도론』, 『대방광불화엄경』, 『불공견식신변진언경』 등 순경사 당대의 불경 내지 관련 논소들을, 경홍사의 경우도 『아비달마대비파사론』, 『일체경음의(현옹)』 등 경홍사 당대의 논소들을 통하여 이체자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함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중국 고승들의 자형 정보에 단순 동의한 경홍사와는 달리, 순경사는 자형 정보에 더하여 “訛也”(와전된 것이다: (A)-②), “非也”(잘못이다: (A)-③) 등 그의 판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그만큼 순경사의 자신감 내지 학문적 깊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중산사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은 순경사의 학문적 권위가 신라를 넘어서 일본에까지 인정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34) 이 주석에 대하여 김정빈(2003: 278)에서 “笠=腔”的 음주일 가능성은 보인 것은 잘못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자형주일뿐더러 원문 자형도 「綈」이기 때문이다.

## 2) 자음주(B): 순경사 9, 경홍사 4

- (B)-①順02 耶 [伽]…[耶] 【彙捷云 也遮似嗟二反. … 順憬師  
雖出兩音意取似嗟反. …】 <上:6r-v>
- ※「耶」: 『廣韻』 以遮切\_平麻以, 35) 『集韻』 余遮切\_平麻以,  
『增修互注禮部韻略』 徐嗟切\_平麻邪~余遮切\_平麻以, [순경] 似嗟反\_平麻邪
- ②順03 捷 [大目]…[捷] 【渠焉反. 順憬云 居隱反. …】 <上:6v>
- ※「捷」: 『광운』 渠焉切\_平仙羣~居偃切\_上阮見,  
『집운』 渠言切\_平元羣~渠焉切\_平仙羣~紀偃切\_上阮見~巨偃切\_上阮羣~九件切\_上羣見,  
[순경] 居隱反\_上隣見
- ③順05 離 [離] 【力知反. 順憬云 又力智反.】 <上:6v- 7r>
- ※「離」: 『광운』 呂支切\_平支來~力智切\_去竄來~郎計切\_去霧來,  
『집운』 抽知切\_平支微~鄰知切\_平支來~力智切\_去竄來~輩尅切\_上紙來~郎計切\_去霧來,  
[순경] 力知反\_平支來~力智反\_去竄來
- ④順06 藥 [阿禡]…[多羅三]…[藐] 【慈恩云 彌爵反. 本是邈音. … 順憬云  
或作藥 力當反 非音也.】 <上:8r>
- ※「藥=藐」: 『광운』 魯當切\_平唐來, 『집운』 盧當切\_平唐來,  
[순경] 力當反\_平唐來
- ⑤順12 珊 [珊] 【蘇干反. 順憬云 又思割反.】 <上:18r>
- ※「珊」: 『광운』 蘇干切\_平寒心, 『집운』 相干切\_平寒心~柔葛切\_入曷心,  
[순경] 蘇干反\_平寒心~思割反\_入曷心
- ⑥順15 禪 [禪] 【… 順憬云 借音時戰反.】 <上:20r>
- ※「禪」: 『광운』 市連切\_平仙禪~時戰切\_去隸禪, 『집운』 時連切\_平仙禪~時戰切\_去隸禪,  
[순경] 時戰反\_去隸禪
- ⑦順18 切 [一切] 【七計反. … 順憬云 又竊音.】 <上:25r>
- ※「切」: 『광운』 七計切\_去霧清~千結切\_入屑清,  
『집운』 七計切\_去霧清~千結切\_入屑清~倉代切\_去代清,  
[순경] 七計反\_去霧清~竊音\_入屑清
- ⑧順19 響 [響意] 【… 順憬云 鄉音.】 <上:25v>

35) 반절 정보는 “小學堂韻書集成” 사이트(/xiaoxxue.iis.sinica.edu.tw/yunshu)에서 검색한 결과이다. 반절 뒤 아래첨자로 표시된 것은 해당자의 중고음 음위 정보임. 『한어대사전』 등 참조.

※「響」: 『광운』 許兩切\_上養曉, 『집운』 許兩切\_上養曉~許亮切\_去漾曉,

[순경] 鄉音\_去漾曉~平陽曉

⑨順22 度 [度量] 【順~~提~~云 上鐸音. …】 <上:28v>

※「度」: 『광운』 徒故切\_去暮定~徒落切\_入鐸定, 『집운』 徒故切\_去暮定~達各切\_入鐸定,

[순경] 鐸音\_入鐸定

⑩憬01 樂 [軌]…[闔]…[婆]…[樂] 【慈恩云 五孝反. … 玄應 憬興 行蹈同之. …】 <上:11v>

※「樂」: 『광운』 五角切\_入覺疑~盧各切\_入鐸來~五教切\_去效疑,

『집운』 逆角切\_入覺疑~歷各切\_入鐸來~力角切\_入覺來~魚教切\_去效疑~力照切\_去笑來,

[경홍] 五孝反\_去效疑

⑪憬02 袂 [衣械] 【慈恩云 孤得反. … 玉篇 古來反. 戒也. 玄應 憬興 同之. …】 <中:3v>

※「械」: 『광운』 古得切\_入德見,

『집운』 居諧切\_平皆見~柯開切\_平哈見~訖黠切\_入黠見~訖得切\_入德見,

[경홍] 古來反\_平哈見

⑫憬05 尚 [尚於] 【上慈恩云 時亮反. … 憬興同之.】 <中:17v>

※「尚」: 『광운』 市羊切\_平陽禪~時亮切\_去漾禪, 『집운』 辰羊切\_平陽禪~時亮切\_去漾禪,

[경홍] 時亮反\_去漾禪

이상 자음주들을 함께 제시된 중고음 음위 정보와의 異同 與否를 살펴보면, 대부분( $11/12=91.7\%$ ) 중고음 음위와 일치함이 두드러진다. 불일치 사례는 순경사의 자음주 (B)-②번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우선 9할 이상의 음주들이 중고음의 음계와 일치하고 있음을 순경사와 경홍사의 활동 당시인 7세기 중반~8세기 초엽의 신라한자음이 이미 중고음에 기반하여 정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多大한 것으로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

문제는 순경사가 「捷」자의 자음으로 제시한 반절인 “居隱反\_上隱見”과 중고음(=中算音) “渠焉反\_平仙羣”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에 대한 기존 논의들에서의 설명을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漢字音에 있어서 ‘捷’의 음을 ‘居隱反’이라고 한 것은 특이하다. 康熙字典에 보

면 ‘捷’에 대한 여러 韻書들의 反切이 ‘渠焉’, ‘渠言’, ‘丘言’, ‘巨偃’, ‘居偃’, ‘紀偃’, ‘鋸偃’, ‘九件’ 드이 보이지만 韵자를 ‘隱’으로 한 예는 찾아 볼 수 없다. 이는 우리의 방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三國史記의 地名을 보면 嘉猷縣 本近一作巾品縣(권34, 禮泉郡條)이라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近’자를 ‘巾’으로도 쓰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두 그자가 고대어에서 서로 통용되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인데 順標의 註音은 이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의 韵書에 없는 독특한 反切이라면 우리의 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풍현 2003: 40〉

“즉, 三國史記 地名에 보이는 「近」과 「巾」의相通은, 上記와 같은理由로 中古音 以前의 上古時代에나 있었던 未分化的 現象에 의한 것이고, 이것이 三國史記 地名에 顯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歸字「捷」은, 元部에 屬하며 上古音研究의 諸家들은 共通의으로 上古 a 音을 想定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 「捷」의 韓國漢字音 ə는 上古音까지 끌어올리기에는 無理가 따른다. … 즉, 中國文獻上으로는 阮韻「捷」과 隱韻「隱」과의 相關關係를 찾을 수가 없다. 이는 陸德明『經典釋文』의 反切에도 마찬가지이다.”

〈김정빈 2003: 284-294〉

두 논의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남풍현(2003)에서는 순경사 자음주에서의 「隱」↔「焉」의 상통이 『삼국사기』 지명에서의 「近」↔「巾」의 상통과 동궤로 보아 신라의 방언한자음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본 반면, 김정빈(2003)에서는 「隱」↔「焉」의 상통관계가 중국의 중고음은 물론 상고음에서도 설명되기 어려운 특이 대응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것으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近」↔「巾」의 상통은 상고음에서 두 글자 모두 文部(/-jən/)인데<sup>36)</sup> 비해 「隱」↔「焉」의 상통은 상고음에서 두 글자가 각각 文部(/-jən/)와 元部(/-jan/)여서 동음관계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점 김정빈 선생의 논의에 동의하되, 순경사 자음주에서의 「隱」↔「焉」의 상통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시도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문제의 상통자 「隱」과 「焉」이 향가에서 주제격조사 표기에서

36) 「近」↔「巾」의 상통관계를 중국 상고음으로 설명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권인한(1997: 299), 권인한(2019: 268)을 참조.

‘-은’과 ‘-운’을 담당하는 글자로 쓰이면서도 양자가 중화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안민가」에서의 “君隱(님금은)<1행>/ 臣隱(\*한것은)<2행>/ 民焉(아름(사름?)은)<3행>”<sup>37)</sup>에서처럼 두 글자가 모음조화의 음양의 짹을 이루는 경우가 있는 반면, 「청전법륜가」/ 「상수불학가」에서의 “吾焉(나는)<3/ 4행>” vs. 「제망매가」에서의 “吾隱(나는)<3행>”, 「참회업장가」에서의 “向焉(아운)<2행>” vs. 「상수불학가」에서의 “向隱(아운)<10행>”의 예들에서는 「隱」 vs. 「焉」의 차이가 보이지 않음이 그것이다.<sup>38)</sup>

만약 순경사가 알고 있었던 향찰 표기 체계에서 「隱」 vs. 「焉」의 차이가 균여 향가의 「상수불학가」에서처럼 중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순경사가 이러한 향찰 표기 체계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sup>39)</sup> 일시적으로 자음주에서 위와 같은 특이한 반절을 넣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현재 필자의 가설이다.

앞으로 더 많은 보강이 필요하겠지만, 필자의 이러한 가설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이 특이례를 제외할 때 순경사와 경홍사 당대의 신라한자 음의 체계는 앞서 말한 대로 중고음을 기반으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 3) 자의주(C): 원측사 1, 순경사 8, 경홍사 6, 태현사 1

(C)-①圓測 眼 [眼] 【… 圓測師云 照矚名眼也.】 <上:27r>

※“五眼之義, 諸經多說. 照矚名眼, 眼別不同…” <『大乘義章』 권20><sup>40)</sup>

37) 김완진(1990)의 해독안 참조.

38) 이 점에서 황선엽(2008: 208)에서 “‘隱’은 ‘은’, ‘焉’은 ‘운’을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확증된 것이 아니며 반례로 볼 만한 예들이 많다.”라고 한 주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9) 실제 740년대 이전의 신라 자료로 평가되는 동대사도서관장 『화엄경』 권12~20의 각필점을 살펴보면, 모음조화의 음양 짹을 보이는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예) “大[隱]柱[昞]”→한(<하-은>) 길(옹)을[큰 기둥을]<293행>, “當[只]知[音叱]~”→반독 알-읊(-다)[반드시 알지어다!]~<935행 등>. 8세기 초반은 순경사의 활동 시기이므로 당시의 향찰/구결 표기 체계에서는 「隱」 vs. 「焉」의 구별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 ②順08 曼殊沙 [曼殊沙] 【尸加反. 慈恩云 曼殊沙 唐云 柔軟也. 光宅云 白圓花. 吉藏云 音花. 順憬云 檻花也.】 <上:12r>
- ※檻花: 待考 出典!<sup>41)</sup>
- ③順11 喻 [喻] 【羊戌反. 慈恩云 開也. 曉也. 疊捷作諭. 諭喻同也. 順憬云 經本從口者 喜也. 非經義也. …】 <上:17r>
- ※“喻喻 喜也” <『廣雅·釋訓』><sup>42)</sup>
- ④順16 具 [具] 【… 𩶑𩶑云 足也. 順憬云 俱也.】 <上:21r 본문><sup>43)</sup>
- ※「俱」: ④具有; 具備. 漢 王充《論衡·物勢》: “五藏在內, 五行氣俱.” <『漢語大詞典』>
- ⑤順17 士 [語]…[士] 【… 順憬云 知終知始名之爲士也.】 <上:24r>
- ※“知終知始名之爲士也.”: 待考 出典!
- ⑥順21 廢 [廢] 【… 順憬云 或作廢. 困病也. 非此義也.】 <上:27v>
- ※「廢」: 『說文』 固病也. <<http://uny.kr/?q=廢>>
- ⑦順23 猶豫 [猶豫] 【… 順憬 猶豫 躊躇也. …】 <上:29v>
- ※「猶」: 【集韻】 居山中, 聞人聲豫登木, 無人乃下. 世謂不決曰猶豫. <<http://uny.kr/?q=猶>>
- ⑧順26 彩 [彩] 【… 順憬云 五色之總名也. …】 <上:34r>
- ※“五色之總名也.”: 待考 出典!
- ⑨順32 網 [網] 【… 順憬云 取魚具也.】 <上:37v>
- ※「網」: 【易·繫辭】 作結繩而爲罔罟, 以佃以漁. cf)「簎」: 【集韻】 陟敎切, 竝音 罂. 與罩同. 竹籠, 取魚具. <<http://uny.kr/?q=簎>>
- ⑩憬02 袂 [衣禊] 【… 說文 宗廟戒樂. 從示戒聲. 玉篇 古來反. 戒也. 玄應 憬興 同之. …】 <中:3v>

40) 項楚(2019), 『寒山詩注』, 「箇是誰家子」(138)의 (三) ‘肉眼’條 주석 참조.

41)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에서 제공되는 『佛說大乘莊嚴寶王經』 卷第4(ABC\_IT\_K1088\_T\_004; 김영덕 번역)에서의 “曼殊沙華”에 대한 역주에 “檻花”가 나오나 근거 제시는 없음.

산스크리트로 mañjūsaka, 파리어로 mañjūsaka. 또는 유연화(柔軟華) · 백원화(白圓華) · 여의화(如意華) · 함화(檻花) · 만수안화(曼殊顏華)라고도 한다. 그 꽃이 큰 것은 마하만수사화(摩訶曼殊沙華)라 한다. 만수사화는 사종천화(四種天華)의 하나로서 천계(天界)의 꽃이름이다. 그 꽃은 선명한 흰색으로 부드러워서 천(諸天)의 뜻에 따라서 이 꽃이 떨어져 설법하는 도량을 장엄하니 보는 자마다 악업을 끊는다고 한다.

42) 梁曉虹·陳五雲(2014), p.51에서 재인용.

43) 이 주석에 대해서도 김정빈(2003: 277)에서 “具=俱”的 자음주로 본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⑪憬03 頓 [頓] 【… 憬興云 頓者 一時也. …】 <中:6r>

※「頓」: ⑫佛教語. 頓悟. 《肇論疏》引南朝宋 竺道生曰: “夫稱頓者, 明理不可分, 悟語照極, 以不二之語, 符不分之理, 理智悉釋謂之頓悟.” <《漢語大詞典》>, cf)“頓者 一時也”: 待考 出典!

⑫憬04 醒 [蓬]…[醉] 【… 廣雅 盛也. 蓬勃繁盛之貌. 或作焞字. 无所從也. 憬興同之. …】 <中:15v>

⑬憬05 尚 尚於】 【上慈恩云 … 庶几也. 直也. 憬興同之.】 <中:17v>

⑭憬09 婆利師迦 [婆利師迦] 【憬興云 此云 白色華也. …】 <下:18r>

※婆利師迦: 梵語 vārsika … 又作婆師花·婆利師花·婆師迦花 … 學名 Jasminum sambac, 產於印度, 屬木犀科植物, 乃素馨之一種, 花白色, 甚香. … [慧琳音義卷二十五, 慧苑音義卷上, 希麟音義卷五] <《佛光大辭典》>

⑮憬10 執金剛神 [執金剛神] 【… 憬興云 瑜伽論護天帝城之神是也.】 <下:20r> ※執金剛神: (梵語: Vajradhara; Vajrapāṇi) … 為守護欲界天帝釋天宮門的夜叉神, 是佛教担当的護法之一, 手執金剛杵, 外貌兇惡, 象徵以智慧擊破無明. … <<https://zh.wikipedia.org/wiki/執金剛神>>

⑯太賢 牟尼 [牟尼] 【… 太賢師云 此云 寂默. 成就無上寂默法者也.】 <下:3v>

※[0603b11] 論. 大覺世尊至所莊嚴故.

[0603b11] 述曰. 次解在牟尼名法身 成就無上寂默法者. 梵言牟尼 此言寂默. … <《成唯識論述記》卷十(末)=tripitaka.cbeta.org/T43n1830-010>

이상 자의주들의 원전과의 일치도를 표로 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3〉 음의가별 자의주의 원전 일치도

	○	△	?
원족	①		
순경	③ ⑥ <sup>44)</sup>	④ ⑦ ⑨	② ⑤ ⑧
경홍	⑩ ⑫ ⑬	⑭ ⑮	⑪
태현	⑯		
소계	7	5	4

44) 이 항목에서는 『설문』에서의 “固病”이 [석문]에서는 “困病”으로 되어 있는 차이가 보인다. 이는 순경사 원문에서의 오류일 수도 있으나, 醍醐寺藏本 [석문]에 전사상

※ [약호] ○: 완전 일치, △: 부분 또는 간접 일치, ?: 미상 또는 待考

<표3>으로 정리한 내용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전체적인 경향 파악에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라 음의가들의 자의주에서도 원전과의 일치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완전 일치 7, 부분(또는 간접) 일치 5로 집계되므로 전체적으로는  $12/16=75\%$ 의 일치를 보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원측사와 태현사의 두 음주가 원전과의 완전 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중산사가 의도하였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자은대사와 대립하였던 원측사와 태현사의 주석과 거리를 두었으리라 추측한 바 있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사가 인용한 두 주석이 원전에 완전히 부합되고 있음은 그만큼 원측사와 태현사의 주석에 대해서는 원전과 어긋남이 없는 것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행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원측사와 태현사의 주석의 전체상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고만 안타까움은 남는 것이지만, 두 스님이 원전 학습을 계율리하지 않은 학구적 태도를 읽을 수 있음이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의의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특히, 태현사가 자은대사 규기사의 『성유식론술기』의 내용을 순서는 조금 바꾸었지만, 원문을 충실히 옮긴 것은 종파적 대립과는 별개로 배울 것은 배우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학구적인 태도의 발현이었다고 보아 문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순경사와 경홍사의 주석들에서 보아도 자형·자음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야』, 『설문해자』(이상 순경사), 『혜원음의』(경홍사) 등을 근거로 자의주를 달고 있음은 역시 두 스님의 학문적 깊이를 가늠케 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순경사가 ⑦번 주석 “猶豫 躊躇也”에서 連綿詞<sup>45)</sup> “猶豫”에 대하여 또다른 연면사 “躊躇”로 주석을 달고

---

의 오류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吉田金彦 1979: 226-227 참조) 후자의 가능성에 더 큰 것으로 보고 싶다.

45) 두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사(詞)를 이루는 것. 쌍성(雙聲), 첨운(疊韻), 비쌍성첨운의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猶豫”와 “躊躇”는 쌍성의 예에 속한다.

있음은 梁曉虹·陳五雲(2014: 53-54)에서 지적한 바 있듯이 釋氏나 『說文』의 뜻풀이를 뛰어넘는 학문적 폭과 깊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4) 기타(D): 순경사 12, 경홍사 2

자형·자음·자의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여기 한 자리에 모아 고찰하기로 한다. 편의상 주로 순경사의 주석에 대한 분석에 주력할 것이다.

①順01 者闍崛 [者]…[闍]…[崛] 【… 舊云 者闍崛訛略也. 新羅順憬師音義云 或言伊沙崛訛也.】 <上:4v>

※ 【者闍崛山】或言伊沙崛山, 或言揭梨駝羅鳩胝山, 皆訛也. 正言姑栗陁羅矩吒山. 此譯云 鷺臺, 又云 鷺峰. … <『玄應音義』卷6「妙法蓮花經」>

②順04 旃 [摩訶迦旃] 【… 順憬云 旁安木. 未詳所出.】 <上:6v>

※旁安木: 待考 出典!

③順10 旃檀 [檀] 【… 順憬云 皮青而滑. 木堅實也. …】 <上:16r>

※「檀」: 明 李時珍 『本草綱目·木二·檀』 “檀有黃·白二種, 葉皆如槐, 皮青而澤, 肌細而膩, 體重而堅, 狀與梓榆·莢蓬相似……檀木宜杵·櫟·鎚器之用.” <『한어 대사전』>

④順13 珊瑚 [瑚] 【… 順憬云 突寶國出珊瑚也.】 <上:18r>

※突賓國, 王治循鮮城, 去長安萬二千二百里. … 突賓地平, 溫和 … 有金·銀·銅·錫, 以為器. 市列. 以金銀為錢, 文為騎馬, 幕為人面. 出封牛·水牛·象·大狗·沐猴·孔爵·珠璣·珊瑚·虜魄·璧流離. 它畜與諸國同. <<https://zh.wikipedia.org/w/index.php?title=%E5%85%89%E8%89%AA&oldid=2700000>>

⑤順14 摩尼 [摩尼] 【… 順憬云 正云末尼.】 <上:18r>

※末尼 ①眞珠, 珠玉, 寶石. 「末」은 「摩」로도 읽. 唐 玄奘 『大唐西域記·藍摩國』: “(太子)於天冠中解末尼寶, 命僕夫曰: ‘汝持此寶, 還白父王.’” <『漢語大詞典』>46)

⑥順20 瑰瓈 [瓈]…[瓈] 【… 順憬云 有青色如玉. 亦狀如雲母. 色如紫玉. 光耀如蟬羽矣.】 <上:26v>

46)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kabc.dongguk.edu)에서 불경에서 “末尼”가 쓰인 용례를 검색한 결과는 『관세음보살여의마니다라니경』 2회, 『관자재보살여의륜유가』 1회, 『광대보누각선주비밀다라니경』 2회 나타난다.

※ “火齊狀如雲母，色如紫金，有光燿，別之，則薄如蟬翼 …” <『梁書·諸夷傳·中天竺國』>, 【火齊珠】 ②琉璃的別稱. <『한어대사전』>

⑦順24 鐮 [鎮] 【… 順憬云 石亂金曰 鏡也.】 <上:33v>

※ 「鎮」: 石似金陶之則分 <『광운』>, 「鏡」: 他侯切, 炅音偷. 石名. 似金. 與鎮同. <『集韻』> ※ “石亂金曰鏡也”: 待考 出典!<sup>47)</sup>

⑧順25 石 [鎮]…[石] 【… 鎏鉢 … 順憬云 青色也.】 <上:33v>

※ “鎮石은 중국과 일본학계에서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黃銅으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신라에서 사용된 ‘鎮石’의 사례는 그와 같은 분석과 맞지 않는다. 「上院寺銅鐘銘」의 내용에 의하면 上院寺銅鐘의 주조에 ‘鎮’가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上院寺銅鐘의 화학 분석 결과 구리-주석 합금인 青銅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김민수 2018: 3-4>

⑨順27 甲 [指]…[爪]…[甲] 【… 順憬云 内外包似甲冑. 故因爲名也.】 <上:34v>

※ “内外包似甲冑. 故因爲名也.”: 待考 出典!

⑩順28 笛 [笛] 【… 順憬云 羌笛三孔也.】 <上:35r>

※ 【羌笛】 古代的管樂器. 長二尺四寸, 三孔或四孔. <『한어대사전』>

⑪順29 琴 [琴] 【… 順憬云 大者二十弦也.】 <上:35r>

※ 【大琴】 古代的一種琴. 《爾雅·釋樂》: “大琴謂之離.” 郭璞注: “或曰琴大者二十七弦, 未詳長短.” 或說二十弦. 見郝懿行義疏.

⑫順31 銅拔 [銅拔] 【… 順憬云 銅拔猶鈴盤也.】 <上:35v-36r>

※ 【銅鉦】 亦作“銅拔”. 打擊樂器. 鐘鉦的別名. … 《通典·樂四》: “銅鉦, 亦謂之銅盤, 出西戎及南蠻. 其圓數寸, 隱起如浮漚, 貫之以韋, 相擊以和樂也.” 《舊唐書·音樂志二》作“銅拔”. <『한어대사전』>

⑬憬07 閣 [閣浮提金] 【慈恩云 此洲北岸有瞻部樹. 閣下有紫金. 故以爲名. 憬興同之. …】 <下:13r>

⑭憬08 曜累品 [○曜累品] 【…并慧淨 穎範 慈恩 玄範 道策 憬興 利貞 慧沼. 皆以此品安普賢品後. …】 <下:16v>

47) “石乱金”을 남풍현(2003: 38)에서는 “돌에 금이 섞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으나, “놋쇠”를 가리키는 「鎮」자와 동의자인 「鏡」와 위의 뜻풀이가 부합되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에서 혹시나 “石乱金”이 “石似金”의 誤寫가 아닐까 생각하고 싶다. 「似」의 이체자 중에 「乱」자로 오인될 만한 자형이 있음을 참조.



&lt;표4&gt; 고승 음의가별 기타주의 원전 일치도

	○	△	?
순경	④ ⑤	① ③ ⑥ ⑩ ⑫	② ⑦ ⑧ ⑨ ⑪
경홍	⑬ ⑭		
소계	4	5	5

<표4>로 정리된 기타주에서도 원전과의 일치도가 높다는 점이다 ( $9/14=64.3\%$ ). 그런데 중국 음의가들과 동의를 표한 경홍사를 제외하고 순경사의 주석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도  $7/12=58.3\%$ 로서 일치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전체 수치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순경사의 학구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음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순경사는 『현응음의』, 『한서』, 『대당서역기』, 『양서』, 『이아』, 『통전』 등 의 원전이나 이에 관련되는 서적들을 탐구하지 않았으면 달 수 없었을 만한 주석들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탐구의 범위도 『한서』 계빈국전, 『양서』 중천축국전, 『이아』 석악지 등에 걸쳐 있을 만큼 폭넓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전적의 탐독 외에 “鎰石”에 대한 주석에서는 타 음의가들이 운서 등에 의거한 추상적인 주석(埠蒼(※曹魏代 張揖撰)云 鎰石似金陶之則分也(※『광운』과 일치). 曇捷 順憬 行瑄 作銛. 曹憲云 鎰銛 金類也.)를 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물의 종류도 “黃銅”으로 하고 있는 것<sup>48)</sup>과는 대조적으로, “청색”이라고 구체적 색상까지 밝히고 있음은 순경사가 중국 문헌에서와는 달리 신라에서의 “유석=청동”이라는 경험적 지식을 그의 주석을 통하여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이론적/경험적 지식을 두루 갖춘 학자였음을 알게 하기에 충분한 사례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48) 【鎰石】①指天然的黃銅礦或自然銅. … 《隋書·西域傳·女國》: “出鎰石·朱砂·麝香·駝牛·駿馬·蜀馬.” <『한어대사전』>

## IV. 맷음말

본고는 『묘법연화경석문』(976, 중산찬)에 인용되어 있는 신라 고승 음의가 4인(원측, 순경, 경홍, 태현)의 한자 관련 주석들을 통하여 통일신라 한자문화의 수준을 분석함에 목표를 둔 것이다. 본론에서의 논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는 [석문]의 주석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과 신라 고승 음의가 4인의 한자주 44개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논의들에서 순경사 32개, 경홍사 10개로 집계한 것과 비교할 때, 원측·태현사의 한자주 각각 1개씩을 추가한 것이 새로운 조사 결과라 할 것인바, 이들을 내용적으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로 나타난다.

고승 음의가들의 한자주 성격에 따른 분류

	圓測	順憬	憬興	太賢	계
자형주(A)		7	2		9
자음주(B)		9	3		12
자의주(C)	1	8	6	1	16
기타주(D)		12	2		14
계	1	36	13	1	51

둘째, 3장에서는 신라 고승 음의가 4인(원측, 순경, 경홍, 태현)의 생애와 저술을 소개한 후, 한자주들의 성격 분류에 따라 자형주(A), 자음주(B), 자의주(C), 기타주(D)로 나누어 그 내용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 1) 자형주(A): 순경사 7, 경홍사 2

①자형주들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순경사와 경홍사가 우리의 예상보다 많은 불경 자료들을 통하여 다양한 자형들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순경사에 있어서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비롯하여 『신역대방광불화엄경음의』, 『대지도론』, 『대방광불화엄경』, 『불공견 삽신변진언경』 등을, 경홍사에 있어서도 『아비달마대비파사론』, 『일체경 음의(현응)』 등 당대의 논소들을 통해 이체자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야 할 것이다. ②여기에 더하여 중국 고승들의 자형 정보에 단순 동의한 경홍사와는 달리, 순경사는 자형 정보에 더하여 “訛也”, “非也” 등 그의 판단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순경사의 학문적 자신감 내지 깊이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중산사가 그대로 인용하고 있음은 순경사의 학문적 권위를 신라를 넘어서 일본에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2) 자음주(B): 순경사 9, 경홍사 4

①자음주들에서는 중고음 음위 정보와의 일치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12=91.7\%$ ). 9할 이상의 음주들이 중고음의 음계와 일치하고 있음은 순경사와 경홍사의 활동 당시인 7세기 중반~8세기 초엽의 신라 한자음이 이미 중고음에 기반하여 정립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多大한 것이다. ②문제는 순경사가 「捷」자의 자음으로 제시한 반절인 “居隱反\_上隱見”과 중고음(=中算音) “渠焉反\_平仙羣”的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에 있는데, 필자는 문제의 상통자 「隱」과 「焉」이 향가에서 주제격조사 표기에서 ‘-은’과 ‘-은’을 담당하는 글자로 쓰이면서도 양자가 중화되는 경우도 다수 있다는 점에서, 만약 순경사가 알고 있었던 향찰 표기 체계에서 「隱」 vs. 「焉」의 차이가 중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순경사가 이러한 향찰 표기 체계에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므로 일시적으로 자음주에서 위와 같은 특이한 반절을 낳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가설을 제기해보았다.

### 3) 자의주(C): 원측사 1, 순경사 8, 경홍사 6, 태현사 1

①자의주들에서도 원전과의 일치도가 높음이 확인된다( $12/16=75\%$ ). 이들 중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원측사와 태현사의 두 음주가 원전과의 완전 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태현사가 자은대사 규기사의 『성유식론술기』의 원문을 비교적 충실히 옮긴 것은 학문적 대립과는 별개로 배울 것은 배우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태도의 발현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다음으로 순경사와 경홍사의 주석들에서 보아도 자형·자음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아』, 『설문해자』, 『혜원음의』 등을 근거로 자의주를 달고 있음은 역시 두 스님의 학문적 깊이를 가늠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특히, 순경사가 “猶豫 躊躇也”에서 連綿詞 “猶豫”에 대하여 또다른 연면사 “踌躇”로 주석을 달고 있음은 중국 측의 뜻풀이를 뛰어넘는 학문적 역량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 4) 기타주(D): 순경사 12, 경홍사 2

①순경사의 기타주에서 원전과의 일치도가  $7/12=58.3\%$ 를 보이고 있어서 다른 주석들보다 일치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그의 학구적 자세를 확인할 수 있음에는 큰 문제가 없다. 순경사가 『현응음의』, 『한서』, 『대당서역기』, 『양서』, 『이아』, 『통전』 등의 원전이나 이에 관련되는 서적들을 탐독하지 않았으면 달 수 없을 주석들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탐구의 범위도 『한서』 계빈국전, 『양서』 중천축국전, 『이아』 석악지 등에 걸쳐 있을 만큼 폭넓은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②또한 “鎰石”에 대한 주석에서는 중국 음의가들이 운서 등에 의거한 추상적인 주석을 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물의 종류도 “黃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청색”이라고 구체적 색상까지 밝히고 있음은 순경사가 신라에서의 “유석=청동”이라는 경험적 지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이론적/경험적 지식을 두루 갖춘 학자였음을 알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통일신라의 한자문화가 상당한 경지에 올라 있었던 것으로 본고의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21년 10월 26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1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 古典研究會·築島 裕(主編), 『古辭書音義集成 第四卷 妙法蓮華經釋文』, 東京: 汲古書院, 1979.
- 권인한,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 연구』, 태학사, 1997.
- 권인한, 「한국한자음의 역사」, 『국어사 연구 1: 계통·문자체계·시대구분·음운』, 태학사, 2019.
- 권인한, 「고대 한국한자음의 연구(IV)-釋憬興撰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의 음주를 중심으로-」, 『국어사 연구』 32, 2021.
- 김민수, 「신라 鑄石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논문, 2018.
-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 김완진, 「안민가 해독의 한 반성」,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정빈, 「일본 『묘법연화경석문』에 나타나는 신라 순경사의 반절에 대하여(상)」, 『구결연구』 11, 2003.
- 김정빈, 「일본 『묘법연화경석문』에 나타나는 신라 순경사의 반절에 대하여(하)」, 『구결연구』 13, 2004.
- 남풍현, 「신라승 순경과 경홍의 법화경 주석서에 대하여」, 『구결연구』 10, 2003.
- 이승재, 「7세기 밀엽의 한국어 자료-경홍찬 『무량수경연의술문찬』의 주석을 중심으로-」, 『구결연구』 20, 2008.
- 황선엽, 「<안민가> 해독을 위한 새로운 시도」, 『한국문화』 42, 2008.
- 吉田金彦, 「醍醐寺藏 妙法蓮華經釋文解題」, 古典研究會·築島 裕(主編), 위의 책, 1979.
- 吉田金彦·宮澤俊雅, 「醍醐寺藏 妙法蓮華經釋文索引」, 古典研究會·築島 裕(主編), 위의 책.
- 梁曉虹·陳五雲, 「新羅僧順憬殘存音義考-以『法華經釋文』為中心」, 『承繼與拓新: 漢語語言文字學研究(下卷)』, 香港: 商務印書館, 2014.
- 項楚, 『寒山詩注』, Beijing Book Co. Inc.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s://kabc.dongguk.edu/>)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小學堂韻書集成”(<https://xiaoxtue.iis.sinica.edu.tw/yunshu/>)

CBETA 電子佛典集成(<http://tripitaka.cbeta.org/>)

SAT DB([21dzk.lib.tu.ac.jp/SAT/](http://21dzk.lib.tu.ac.jp/SAT/) satdb2015.php)

■ Abstract

A Study on Chinese character culture of Unified Silla  
through the *Annotations on the Lotus Sutra*  
(『妙法蓮華經釋文』: ALS)

Kwon, In-han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level of the Chinese character (hereafter 'Cc') culture of Unified Silla through the annotations of 4 Silla high priests (Woncheuk, Sungyeong, Gyeongheung, Taehyeon) appearing in the ALS editted by Japanese monk Chuzan(中算) in 976.

In Chapter 2, the annotations of ALS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As a result, 44 Notes on Cc(=NCcs) of the four Silla phonologists(音義家) were collected, and were classified as 9 NCcs on Shape, 12 NCcs on Sound, 16 NCcs on Meaning and 14 NCcs on the others.

In Chapter 3, briefly introduced the lives and writings of Silla phonologists, and then analysed 51 NCcs' contents. Overall, the degree of agreement with the original Chinese text for each NCc is high, which means that the four Silla Phonologists had more knowledge about the Cc's Shapes, Sounds and Meanings than we expected. In addition,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each NCc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NCcs of Shape: It is noteworthy that Sungyeong presented his judgments on the NCcs of Shape such as "be wrong" and "be incorrect", which shows his academic confidence and depth. The fact that Chuzan quoted these NCcs as it were, can be seen as a sign that the academic authority of Sungyeong was recognized not only in Silla, but also in Japan.

2) NCcs of Sound: Among the NCcs of Sound, I tried to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Sungyeong's Note of “捷=居隱反” and the Middle Chinese NCc “渠焉反”. It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re are some cases where 隱 and 焉 are used as characters for ‘-eun/은’ and ‘-ʌn/은’ in Hyangga, but in more cases this distinction is neutralized. If, in the notation system of Hyangga that Sungyeong knew, distinction between 隱 and 焉 was neutralized, it was hypothesized that, under the influence of this notational system, Sungyeong would have exhibited the above peculiarity even in NCc of Sound.

3) NCcs of Meaning: The most notable among NCcs of Meaning is that Woncheuk and Taehyeon's Notes are in perfect agreement with the original text.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aehyeon's relatively faithful 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of the Wei-shi shu-ji(唯識述記=成唯識論述記) by Kui-ji(窺基) was a manifestation of his academic attitude against sectarian confrontation. And it is noteworthy that in the commentary “猶豫 躊躇也” of Sungyeong, Lian Mian word(聯綿詞) “猶豫” is annotated with another Lian Mian word “躊躇”, which show his academic competence that goes beyond the level of Chinese phonologists.

4) NCcs of the others: In the commentary on “Yuseok/鎔石” by Sungyeong, unlike Chinese phonologists, he even revealed the specific color of “blue”, which is the empirical knowledge of “Yuseok=bronze” in Silla. It is judged that it is sufficient to make it known that he was a scholar with theoretical/empirical knowledge.

Combining the above discussion, I would like to conclude that the Chinese character culture of Unified Silla had already reached a considerable high level in the mid-7th and early 8<sup>th</sup> centuries.

**keywords :**

The Annotations on the Lotus Sutra(『妙法蓮華經釋文』), Notes on Chinese character(=NCcs) on Shape, Sound, Meaning and the others. High priests Woncheuk, Sungyeong, Gyeongheung and Taehyeon

